

※ Facebook でレポートに関するアンケートを実施しています
ので、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https://ja-jp.facebook.com/cir.yamaguchi/>



10月号 CIR レポート

韓国



韓国の様々な迷信

皆さん、こんにちは！韓国の国際交流員イ・スンファです。

少し涼しくなってきたなと思ったら、怒涛の台風ラッシュが待っていました。この前は、周南からの仕事帰りに、強風で電車が止まってしまい、電車の中で1時間半を過ごすという経験もしました。その時隣の席に座っていた60代の男性もこんな経験は初めてだ、と言っていました。毎日が新しい経験の連続です。今回は前回の投票結果により、韓国の迷信について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嘲笑とはてなマークが止まらないかもしれません。皆さん、だからこそ迷信なのです。

1. 扇風機死亡説



扇風機死亡説はすでに外国に知られている有名な韓国オリジナル迷信です。(英語では Fan death と言います。)密閉された空間で扇風機をつけっぱなしで寝てしまうと、部屋の中の酸素が足りなくなり、死に至るといった内容の迷信です。もちろん迷信ですので、実際死んだりはありません。あるキー局のニュースで報道されてから一気に広がって、実際に扇風機の取扱説明書にも“密閉された空間で使用する場合、窒息死の恐れがあります。”という警告が書かれました。迷信だというのが判明されてから窒息死という単語は消されましたが、呼吸困難や体温低下の恐れがあり大変危険です、という文章は相変わらず残っています。

実際、1910年代に発刊された新聞では扇風機をつけっぱなしで寝ると風邪を引いたり熟睡ができなくなったりという、極めて常識的な内容が報道されてから、扇風機の害

悪に関する内容はますます刺激的な方向に進んでいきます。1920年代には扇風機が部屋を真空状態にするので酸素不足になるという記事が出たり、1930年代には扇風機を付けたまま寝落ちたら死ぬという噂が流れたりしました。なんと100年の歴史を誇る迷信です。もちろん、最近はこれを信じている人は大分減りましたが、2000年代まで、夏になれば、ニュースに扇風機の電源を消し忘れた人が死亡したという報道がいつもありましたが、相変わらず50代以上の方々はまだこの迷信を信じている人が少なくありません。

実は、扇風機は夜に外からの騒音を防いでくれるというメリットがあり、そしてアメリカの研究によると、寝る前に1時間ぐらい扇風機を使用してから眠った人の方が、そうではなかった人よりもっと長く深い睡眠をとることができたいです。

2. 夜に爪を切ると、縁起が悪い



この迷信は、昔、電気が普及されてなかった時、夜に爪を切るとけがをする恐れがあったため、これの防止策として大人たちが作ったのではないかと、私は思っています。しかも爪切りという道具が発明される前は、はさみや鎌で爪を切っていたので、物がきちんと見えない夜に爪を切るのはとっても危なかったです。

そして韓国の昔話の一つで「爪を食べたねずみ」という話があります。主人公が切った爪を外で捨てたら、ねずみがそれを食べて、その主人公に変身するという話です。ねずみは主人公の家に行って、自分が本物だと言い出し、結局本当の主人公は家から追い出されます。昔話ですので、結末としては様々なバリエーションがありますが、主人公がのら猫を連れてきて、その猫が主人公に変身したねずみをかみ殺すという結末が一般的です。しかもこの話は、昔、日本の「まんが世界昔ばなし」でも紹介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

それだけではなく、昔から韓国では爪は霊が生き返る時に使われてきたという話もあったらしいです。

3. 赤ちゃんに関する迷信

韓国にも日本の選び取りと似ているトルザビというイベントがあります。トルは初誕生日、ザビは握るという意味の韓国語です。初めての誕生日に、お盆にいろんな物を置いて、赤ちゃんが選んだ物で未来を占います。時代によって置くものが変わる場合もあります。例えば、最近では子供が芸能人になることを願う親は、お盆の真ん中にマイクをおいて、長寿を意味する糸の場合は、最近皆長く生きているから、赤ちゃんが選ばないように外の方へ置いたりもします。韓国の初誕生日パーティーに行ったら、親が赤ちゃんに選んでほしいの握らせるために、一生懸命頑張っている滑稽な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して韓国ではお腹に赤ちゃんがいる間に、赤ちゃんに名づける文化があります。これを胎名と言います。かわいい単語や健康を祈る名前を付けるのが一般的です。たとえば、お母さんが妊娠していて、この子がこれからずっと健康であることを祈って、赤ちゃんのことを丈夫ちゃんと呼んだりします。’

4. 他人の下着に宿った神秘的な力



韓国には人の下着をつけることに関する迷信があります。もちろん今は完全に消えましたが、昔は男性が女性の下着をつけて試験を受けたら成績がよくなるという噂が話題になり、社会的な問題にな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試験の事だけではなく、ギャンブルをしに行くときに奥さんの下着をつけて行ったり、戦場で女性の下着をつけていったりすると撃たれないという俗説もあったらしいです。実際、韓国でプロ野球が始まった1980年代、当時リーグ最高のピッチャーと対決することになった同僚の投手に女性の下着を渡した選手もいました。その選手は自分が先発投手の時に女性の下着を付けると、絶対勝っていたらしいです。

そして朝鮮時代(1392-1897)には嫁が息子を産めなかった場合、その嫁を家門から追放する悪習がありましたが、これのせいで当時息子を産むために、息子を多く産んだ女性の下着を借りてつける文化がありました。お金も払って、借りたい人が多すぎて予約をしなきゃいけない場合もあったらしいです。

5. 恋人に関する迷信



韓国には恋人にあげてはいけないプレゼントがあります。それは靴です。靴をもらった相手が浮気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いう迷信です。(新しい靴を履いて他の人に行ってしまうという意味です。)他に男が手羽先を食べると浮気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いう話もあります。(他の人に飛んでいくという意味です。)

そしてソウルにある美しい故宮の中に、徳寿宮(トッスグン)という所があります。この徳寿宮の石垣の道はデートコースとしても有名ですが、この道と一緒に歩いたカップルや夫婦は別れるという迷信がありました。このような迷信ができた理由としては、昔はこの道を通らないと家庭裁判所に行けなかったからではないか、と推測されています。

また、昔の時代には結婚適齢期を逃し、結婚していない男女の恨みで天が憤怒し、日照りや洪水等、いろんな自然災害が起きると信じられていたので、王様が直接その対策

を出すこともありました。全国の結婚できなかった男女を全数調査して、国が支援金を出してまで結婚させたり、大罪を犯して没落してしまった家門の人でも、国が婚姻させるべきと話したりしたらしいです。

6. たかが夢、されど夢

昔から夢は神秘的な力を持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した。科学的に言うと、夢を見ることは、ただきちんとした睡眠をとっていないという証拠ですけどね！

韓国では、夢に竜や豚が出てきたらいい夢、つまり吉夢と言います。竜は神秘的な存在、そして豚は多産と豊かさを意味しているからです。そして韓国で豚の漢字の音はドンで、これはお金を意味するドンと同じ発音です。大概こんな夢を見た人は宝くじを買います。ちなみに宝くじに当たった人の何人かは夢に出てきたご先祖様が言ってくださった番号で宝くじを買ったら、1等になったと話しています。そして韓国では半分冗談で夢を売ったり、買ったりもします。高くても10円ぐらいですけど。

7. 9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



十進法が使用されている文化圏で10という数字は完全を意味します。9は10になる前の、まだ不完全で不安定な状態です。したがって、韓国では9に関することは不吉だと思ってしまう迷信があります。年齢に9が入る場合、例えば9, 19, 29歳の時には引越したり結婚などをしなかつたりします。銀河鉄道999の999という数字も、少年である鉄郎が大人になる前の、最後の旅を意味す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し、夜が明ける直前の状態を意味しているとも解釈できます。

そして9と言えば、九尾の狐ですね。九尾の狐は日本だけではなく、韓国や中国にもある伝説です。ただ、日本や中国の九尾の狐が単純な妖怪だとしたら、韓国の場合は九尾の狐は人が好きで、人間になりたがるというストーリーがあります。本当の恋をし、人間の男性と結婚して、九尾の狐だということがばれずに100日を過ごしたら人間になれるとか、人間の肝を100個食べたら人間になれるとか、いろんなバリエーションがあります。しかし、条件が何であれ、結婚するとしたら99日目に正体がばれたり、肝を食べている場合は99個を食べた状態で退治されたりするのが定番のオチです。

もっと分かりやすく説明するとしたら、プロ野球で9勝もしくは9セーブを記録している投手が、10勝や10セーブを達成するまで大変苦勞する場合があります。

※ Facebook でレポートに関するアンケートを実施しています
ので、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https://ja-jp.facebook.com/cir.yamaguchi/>



10月号 CIR レポート

韓国



한국의 여러가지 미신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국제교류원 이승화입니다.

조금 시원해졌구나 싶었더니, 노도의 태풍 러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슈난에서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바람이 심한 탓에 토노미 역에서 전철이 멈춰, 전차 안에서 한 시간 반을 기다린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18 호 태풍이 발생했다고 하니, 이번에도 여러분 모두 별 일 없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 페이스북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서 유명한 미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웃음과 물음표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신입니다.

1. 선풍기 사망설



선풍기 사망설은 이미 외국에도 알려진 유명한 한국 고유의 미신입니다. (영어로는 fan death 라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방 안의 산소가 부족해져서 죽게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미신이기 때문에, 죽을 일은 없습니다. 한 방송국 뉴스에서 보도된 후로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사용설명서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질식사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질식사라는 단어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호흡곤란이나 체온저하의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는말은 적혀 있습니다.

사실 1910 년대에 발간된 신문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감기에 걸리거나 숙면을

방해한다는, 상식적인 내용이 보도된 후, 더 자극적으로 바뀌면서 1920 년대에는 방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산소 부족을 유발한다는 기사가 실리고, 1930 년대가 되어서는 선풍기를 켜 놓은 채 잠들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꽤 많이 퍼져있었습니다. 무려 100 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신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믿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2000 년대 까지만 해도 여름이 되면 뉴스에 선풍기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여전히 50 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 미신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선풍기는 밤의 밖의 소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에 들기전 1 시간 정도 선풍기를 켜놓고 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길고 깊은 수면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 밤에 손발톱을 깎으면 재수가 없다



이 미신은, 예전에 전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았을 때, 어두운 밤에 손톱을 깎으면 다치기 쉬우니 이를 막기 위해 어른들이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심지어 손톱깎이가 없었던 시절에는 가위나 낫으로 손톱을 잘랐기 때문에, 밤에 손톱을 자르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옛날 이야기 중에서는, 주인공이 자른 손톱을 먹은 쥐가 주인공으로 변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는 주인공의 집에 들어가 누가 진짜인지 다투게 되고, 결국 진짜 주인공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 말고도, 예전부터 손톱은 영혼이 부활할 때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돌잡이

3. 아기와 관련된 미신

한국에도 일본의 '에라비토리'와 비슷한 '돌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은 첫 생일, 잡이는 잡다는 뜻의 한국어입니다. 첫 생일날, 쟁반에 여러가지 물건을 올려두고, 아기가 선택한 물건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행사입니다. 시대에 따라 물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연예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마이크를 올려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실같은 경우, 요즘에는 다들 길게 사니, 아기가 잡지 않도록 바깥쪽에 두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돌잔치에 가면 부모님이 아기로 하여금 잡길 원하는 물건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짓는데, 이를 태명이라고 합니다. 귀여운 이름이나 건강을 기원하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어로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기의 이름을 사토 죠부라고 부르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4. 다른 사람의 속옷에 갖든 신비한 힘



한국에는 다른 사람의 속옷을 입는 것과 관련된 미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의 속옷을 입고 시험을 치면 성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화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러 갈 때 아내의 속옷을 입고 간다든지, 전쟁터에서 여자의 속옷을 입고 있으면 총알에 맞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 전쟁터에 위문 공연을 갔던 여자 연예인들의 속옷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80년대, 한국의 프로야구에서 당시 리그 최고의 에이스 투수를 상대하게 된 동료 투수에게 자신은 여자 속옷을 입고 나가면 항상 이긴다며 여자 속옷을 건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며느리를 쫓아내는 악습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당시 아들을 낳기 위해 아들을 많이 낳은 여성의 속옷을 빌려 입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속옷을 빌려 입기 위해 돈을 주거나, 예약까지 해야 했다고 하네요.

5. 연인과 관련된 미신



한국에는 연인에게 줘서는 안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신발입니다. 신발을 받은 상대가 바람을 피게 된다는 미신입니다. 그것 말고도 남자가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피운다는 미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름다운 고궁 중, 덕수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덕수궁의 돌담길은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데, 이 곳을 걸은 커플이나 부부는 헤어지게 된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을 지나야지만 서울가정법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옛날 시대에는 결혼하지 못한 남녀의 원한이 하늘을 화나게 만들어, 가뭄이나 홍수 등 여러 자연재해를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결혼 못한 남녀의 수를 파악하고 지원금을 주고 전부 결혼시키게 하거나, 죄를 지은 가문의 자식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혼인은 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6. 그냥 꿈? 그래도 꿈!

옛날부터 꿈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꿈을 꾸다는 것은 그저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얘기지만요.

한국에서는 꿈에 용이나 돼지가 나오면 좋은 꿈, 길몽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복권을 사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권에 당첨된 몇 명은 꿈에서 조상님이 나와 번호를 불러준대로 복권을 샀더니,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농담으로 꿈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비싸도 100 원 정도지만요.

7. 9 를 조심하세요



십진법을 쓰는 곳에서, 10 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9 는 10 이 되기 전의, 아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9 와 관련된 것은 불길하다고 여기는 미신이 있습니다. 나이에 9 가 들어가는 해에는(예를 들면 9, 19, 29 세 때) 이사나 결혼 등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하철도 999 의 999 도 소년인 철이가 어른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둠이 걷히기 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9 로 말하자면, 역시 구미호죠. 구미호는 일본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도 있는 요괴입니다. 다만, 일본과 중국의 구미호가 단순한 요괴라면, 한국의 경우에는 구미호는 인간을 좋아해서,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인간 남자와 사랑하고, 결혼하고 나서 100 일을 버티면 인간이 된다거나, 사람의 간을 100 개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등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무엇이 됐든, 결혼하는 경우에는 99 일째에 구미호라는게 들키거나, 사람의 간의 경우에는 99 개를 먹은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프로야구에서 9 승, 혹은 9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투수가 10 승이나 10 세이브를 달성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